

## 2017년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

- 일본정부는 성장전략을 위한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실행계획을 매년 각의 결정해 왔으며 2017년판 실행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이 핵심 주제임
- '16년까지의 목표달성률이 50% 정도로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잘 진행되지 않았던 성장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임

###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이란

- 일본정부는 일본재흥전략(성장전략)에 대해 '17.2.10.에 '2017년판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실행계획'을 각의결정
  - 실행계획은 '14.1.24.에 처음으로 각의 결정된 후 매년 업데이트되어 발표해 왔음
-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실행계획이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성장전략 관련 시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에 대해 실시기한이나 담당대신 등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방침
  - 2017년판 실행계획에서는 '16.6.2.에 결정된 '일본재흥전략2016-제4차 산업혁명을 향해-' 등에 포함된 시책 중 향후 3년간에 추진할 규제·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한 중점시책을 제시
  - 성장전략 관련 법률은 '13~'16년간에 90개 이상의 법안이 성립되었으며 이러한 법률을 확실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 일본재흥전략2016은 아베노믹스 제2 단계로써 새로운 3개의 화살(꿈이 이루어지는 육아지원, 안심 사회보장, GDP 600조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6.9월에는 철저한 구조개혁과 이노베이션의 실현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성장전략 추진을 위한 '미래투자회의'를 일본경제재생본부 아래에 설치
  -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회의'와 '미래투자를 위한 관민대화'는 폐지하였고 양 회의에서 검토해온 사항은 미래투자회의가 인수
  - 미래투자회의 아래에는 개별 의제에 대해 분야별로 집중적인 조사 및 심의를 실시하는 '구조개혁절차추진회의'를 설치

< 구조개혁철저추진회의 분과회의 >

‘제4차 산업혁명(Society5.0)·이노베이션’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산업혁명</li> <li>▪ 이노베이션</li> <li>▪ PPP/PFI</li> </ul>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추진회의	
‘기업관련제도개혁·산업구조개혁-장기투자의 대담한 재편 촉진-’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li> <li>▪ 규제개혁, 행정절차의 간소화, IT화</li> </ul>
‘의료·간병-생활자의 삶을 풍성하게-’ 회의	
‘Local 아베노믹스(농업·관광·스포츠·중소기업 등)의 심화’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li> <li>▪ 중소기업·관광·스포츠·문화 등</li> </ul>

□ 중점시책의 내용

(1) 새로운 유망성장시장 창출, Local 아베노믹스의 심화 등 관련

① 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

- 무인자동주행에 의한 이동 서비스나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주행을 실현시킬 제도나 인프라 등 환경정비
- 소형 무인기의 산업이용 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 센서 등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스마트공장이나 슈퍼 인텔 사물소제도를 포함한 모노즈쿠리 IoT의 추진
-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된 셰어링 이코노미 추진
- 개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유통의 원활화를 추진하는 환경정비
-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IT·로봇 활용의 촉진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의 보급
- 사이버 시큐리티 인재육성이나 중요 인프라 보호의 충실
- 행정절차·민간거래에 있어서의 IT 이용·활용 추진

② 세계 최첨단의 건강 입국으로

- 로봇·센서 등의 활용에 의한 간병 현장의 생산성 향상, 부담 삭감
- 의료 등 분야의 정보를 활용한 처방이나 치료의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한 치료, 검사 데이터의 수집·관리·익명화
- 개인의 의료·건강 등 정보의 통합적 활용

③ 공격적인 농림수산업의 전개와 수출력 강화

- 농지중간관리기구에 의한 농지 집적·집약화 추진
- 생산자의 소득 향상에 이어지는 생산자재가격 인하
- 생산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안정거래를 할 수 있는 유통·가공의 업계 구조 확립

④ 관광 입국 실현

- 광역관광주유경로를 세계 수준으로 개선
- 관광 관계 규제·제도의 종합적 재검토
- 민박 서비스에 대한 대응
- 크루즈 선박 기항 인수 확충

- ⑤ 스포츠·문화의 성장산업화
  - 매력적이고 수익성을 가진 스타디움·경기장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선도적 사례의 창출 촉진
  - 문화예술산업 및 경제파급효과의 확대 등
- ⑥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생산성 향상
  -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의 창출
- ⑦ 지역미래투자의 촉진/중견기업·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혁신
  - 지역으로 파급 효과가 높은 지역경제건인사업 창출
  - 금융기능 강화나 일관한 지원체제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승계 등 촉진
- ⑧ 기존주택유통·보수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활성화
  - 기존 주택을 활용한 청년·육아 세대의 주거비 부담 삭감
  - 차세대주택 보급 촉진
- ⑨ 환경·에너지 제약의 극복과 투자 확대
  - 고정가격매입제도의 재검토
  - 전력/가스 시스템 개혁
- ⑩ 국민 연계에 의한 소비 마인드의 환기 대책
  - 생활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실시

**(2)생산성 혁명을 실현하는 규제·제도개혁 관련**

- ① 미래투자를 위한 제도개혁
  - 운용기관의 거버넌스·이익상반관리 강화 등을 위한 슈트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재검토
  - 이사회역의 역할·운용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사례집 작성을 통한 이사회 모니터링 기능 강화
  - 대화형 주주총회 프로세스 실현
  -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자익투자의 촉진 등
  - 기업의 정보 공개의 실효성·효율성 향상 등
  - FinTech에 의한 금융혁신 추진
  - 공적 서비스·자산의 민간개방(PPP/PFI의 활용 확대)
- ② 국가전략특구에 의한 대담한 규제개혁
  - '18.3월말까지를 '집중개혁강화기간'으로 간주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6가지 분야 (외국인재 유입 추진, 인바운드 추진, 셰어링 이코노미 추진, 대등한 관계(equal footing) 추진, 다양한 노동 방식의 추진, 제1차산업이나 관광 분야 등의 개혁)

**(3)이노베이션·벤처 창출력 강화, 도전정신이 넘치는 인재의 창출 등 관련**

- ① 이노베이션·벤처 창출력 강화
  - '조직' 대 '조직'의 본격적인 관산학 연계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제도 정비

② 다면적 어프로치에 의한 인재육성·확보 등

- 교직원의 수업력 향상과 학교 현장에서의 철저한 IT 환경정비
- IoT·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견인할 톱 레벨 정보인재 육성과 고등교육에서의 수학·과학 교육의 강화
- 노동기준감독처에 의한 감독지도 강화를 통한 장시간 노동 시정
- 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다양화 경영의 실천 추진
- 보육 시설 정비나 보육인재 확보를 착실히 추진하여 대기아동 해소
- 65세 이후 계속고용연장이나 65세까지 정년연장을 실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고령자의 활약 추진
- 고도외국인재를 유치할 입국·재류관리제도의 검토(영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을 단축하는 등 ‘일본판 고도인재 그린카드’ 창설 등)

(4)해외 성장시장 흡수 관련

- 경제연계 협상, 투자협정·조세조약 체결·개정 추진
- TPP를 계기로 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전개 지원
- 외국기업의 대일 투자활동에 관한 규제·행정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포함한 대내직접투자유치의 강화
- 자금적인 어프로치와 인재육성이나 전략적 대외홍보 등 개별 시책을 조합시켜 인프라 시스템 수출 확대 추진

(5)개혁의 모멘텀 ‘개혁2020’ 추진 관련

- 차세대 도시교통 시스템·자동주행 기술의 활용
- 분산형 에너지 자원의 활용에 의한 에너지·환경과제 해결
- 첨단 로봇기술에 의한 유니버설 미래사회 실현
- 고품질의 일본식 의료 서비스·기술의 국제 전개(의료의 인바운드)
- 관광입국 쇼케이스화
- 대일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대책

□ 시책의 진척 및 효과에 대한 평가

- 중점시책은 매년 진척 및 실시 상황을 정리하고 시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 평가는 성과목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달성 여부를 감안하는데, '17.1월 A평가(목표달성기간에 대한 경과기간의 비율 이상으로 진척)한 시책이 136개 중 70개('16.1월은 59개), B평가(A보다 KPI가 덜 진척)는 39개('16.1월 27개)로 실행계획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화함으로써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향상을 도모. 